

송순석 회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구협의회 활동공적 인정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 주최 '2007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 송순석(55)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구협의회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표창을 수상한 송 회장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 선도활동과 불우 청소년(결식아동) 결연 지원 활동, 불우 청소년 지원활동, 불우시설 지원활동 등 적극 참여, 청소년 이해환경정화 및 우범지역 범죄예방활동 전개, 자녀양육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교통질서 준법 캠페인 전개,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증 활동 참여, 행사 개최 쓰레기 줍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 추진 등의 공적을 인정 받았다.

송 회장은 "오늘의 수상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구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봉사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송 회장은 1994년부터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 표창과 2004년에는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 한 바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로당 老人위해 정성스런 점심제공

산호아파트 부녀회원 정성 모아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마다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점심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부녀회가 있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산호아파트 부녀회(회장 용광옥)는 경로당 30여명의 노인들을 위해 매월 두 차례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2년 전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5~6명의 부녀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하여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집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지만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아파트에서 개최하는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5월21일 기지4리가 행정동이 되면서 부녀회장을 맡은 용광옥(48·사진)회장은 "부녀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제공하여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지리 부녀회는 또 지난 4월24일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동해안 효도관광도 다녀오는 등 효도 실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범이 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에세이

추억의 기적소리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에 돌아오는 주말 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버려진 1박 2일 여행을 일요일 오후에 떠났다.

예상대로 서울 쪽으로 돌아오는 차량행렬은 거의 진열상태였고 반대편 우리가 떠나는 도로에는 앞이 막혀 있어 유명인사의 사열 받고 가고 기분이다.

차가 막혀 답답한 사람들의 기분을 애 모르려.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한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흐린 날씨에 상큼한 바람까지 우리의 기분은 최상이었다.

도착지인 주문진까지 시원하게 내려갔다. 미리 전화로 연락된 민박집은 남편의 20년전 알고 지낸 젊은 사람들이라 만나니 편하고 반가웠다.

회갑까지 겪고 있어 자연산 횡감으로 감칠 맛나는 저녁식사를 하고 안개비가 축축이 내리는 해변가를 고성방가로 거닐다보니 우리 일행 여섯 명의 완전한 목욕대다.

관객은 영망인 출연자라도 한마디 질책 없이 파도를 칠컬이며 박수를 보내는 저 넓은 수평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해변의 모래밭은 남기고 간 그들의 체취 인양 부드럽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돌아오는

날에도 천천히 구경하고 적은 값에 별미를 즐기며 어느 휴게소에 도착해 애절한 배호의 노래소리에 CD도 한 장사서 차안의 분위기가 숙연하다. 사람은 갔어도 남아있는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휘한 듯 노래소리에 빠져 있는데 한소절 끝나고 효과음에서 애잔한 기차의 기적소리가 들린다.

순간 차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녹색의 산악이 그림처럼 아름답고 춘천호 물결위로 환상의 열차가 날아가고 있는 듯 하다.

갑자기 40년 가까운 옛날이 생각나는 무슨 연유일까?

20대 초반에 부산 언니집에 같이 있을 때 고향의 부모님이 위급해서 언니와 나는 중앙선 완행열차에 꼬마 조카도 함께 올랐다.

열차가 영주역인가 왔을 때 점심으로 김밥을 사고 마침 플랫폼에 식수대가 있어 물을 뜨러 내려 갔다가 손수를 기다려 거의 물병이 차오르는데 기적소리를 울리며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어머 어떡해" 질려버린 듯 난 감한 나에게 난데없이 손을 잡고 뛰는 게 아닌가? 전후사정 살피며 유가 없었다. 사력을 다해 그 사람에게 이끌리다시피 해서 뛰어

우리는 열차 맨 끝칸을 잡을 수가 있었다.

안도의 한숨 보다는 턱에 차 오른 기쁜 물 줄이처럼 상대 파악도 할 새가 없었다. 분명 건강 한 젊은 남자라는 것밖에... 순간 더 급한 것은 나를 애타게 기다릴 언니 생각이 그 사람에게 고개만 언덕하고 언니가 있는 곳을 찾아 돌아오는데 분명 나를 향해 뭐라고 했는데 뒤도 안보고 와버렸으니 얼마나 매너 없는 무식한 여자라고 하진 않았을까?

이 생각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생각하니 웃음만 나온다.

위의 순간이야 그 사람도 나도 같은 입장이었겠지만 분명 신세를 진 사람은 나였다. 달랑 빈 물병만 들고 낯선 기차역에서 언니와 헤어졌다면 나는 어떤 고초를 당했을지도 모를텐데. 지금 생각해도 얼굴도 기억에서 사라진 그 사람에게 무한 고마운 마음뿐이다. 노래에 얽힌 기적의 여운 때문에 그 옛날 추억이 생각나 감회에 젖어봤다.

알 수 없는 내 미소에 일행들은 영문도 모르고... 추억은 영원한 내 인의 꿈이기도 하다.

자유기고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여름이면 생각나는 시원한 나무그늘. 문득 지나치다 한낱 평범에 나무 한 그루 길가에 서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감돌았다.

멀리서 볼 때는 대수롭지 않았지만 나무 한 그루가 주는 사람은 무한정 한 것 같았다.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한낮에 하루종일 서있는 저 나무는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은 물론이고 우리가 마시는 산수와 더불어 푸르름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화시켜주며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편히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웃과 더불어 정도 나누며 때문 이

정포도 되기도 한다.

옛날에는 자식이 태어나면 과일 나무를 심었다고 들었다. 지금은 환경이 변하여 그리는 못하지만...

나무는 천년 이상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네 인생은 길어야 백년 잘 살아야 80세 이상 그리 길지도 않은 세월동안 바빠서 풍당 거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아야 하는지 잠시 나를 돌아보았다.

날마다 눈만 뜨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 말로만 봉사한다고 해놓고 실천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참석 못하고 정말 나는 저 길가에 나무를 심었다고 들었다. 지금은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을까? 부끄럽기까지 했다. 우리 포천신문 여러 명예 기자님들은 직장 생활과 가사 일까지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늘~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싶어요.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13

경기도지사기 야구대회 준비에 最善



지루한 장마가 온몸을 끈적거리게 만들고 있지만 지구를 태운 듯한 뜨거운 태양과 함께 곧 다가올 여름휴가의 기대감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합니다.

요즘은 TV나 방송들을 보면 한 국야구가 새롭게 태어나려고 무지 애를 쓰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의 훌륭한 스타들 까지 야구의 발전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선 모습을 보면서 내심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가슴깊이 생깁니다.

비록 전용야구장 하나 없어도 많은 동우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운동을 즐기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문득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 포천의 야구팬들은

9월에 구리시에서 개최될 제6회 경기도지사기야구대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표팀 선수들이 선발되어 연습에 몰두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 포천의 명예와 흥보에 적극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홍보는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 성장이 많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 갈 것이고 지역의 발전은 자연스럽고 새롭게 만들어 질 것입니다.

스포츠와 레포츠가 보여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포천의 현재를 우리

는 살펴보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포천의 지형은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산을 사랑하고 즐기는 이들로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는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하고 깨끗한 환경은 철저한 계획과 심혈을 기울인 개발을 통하여 많은 손님들과 시민들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작업은 관광자원의 개발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경남 남해군의 다랭이 논마을에 대하여 한번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쳐다보지 않던 계단식 논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시골의 해변마을이 관광명소화

장승호 포천야구협회 회장

자유기고

경자! 그녀와의 만남



그녀의 행복을 빌어보며 몇 자 적어 볼까한다. 결혼 초 신혼 생활에 쫓겨 있을 무렵 그녀와 나의 남편 친구인 그녀의 애인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처음 본 그녀. 아름다운 얼굴에 자그마한 키. 까탈스럽지 않고 수수하게 생긴 모습. 나의 반 바지가 그녀의 허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었던 그녀는 음식을 먹고 난 후 뒷걸음치기도 서슴지 않았고 그때부터 난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니보다 세 살 연상인 그녀는 언니를 돌봐주며 해왔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집을 나서 이사를 할 때도 항상 그녀의 곁에 내가 머

물고 나의 곁에 그녀가 머물고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할 때나도 젊은 내색 하나 없이 늘 나의 곁에서 디딤돌이 되어주던 그녀를 난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뜻뜻하게 열심히 삶을 헤쳐나가고 있고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 누구의 만류도 뿌리치지 않고 있는 그녀를 난 대역문화 강의를 듣고 시와 소설을 배우며 포천신문에 주부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좋은 글을 올려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녀의 행복을 난 묵묵히 빌어 주고 싶다.

그런 그녀와 나를 우리 이웃은 "너희 둘은 짝짜이야"라고 한다.

긍정적인 생각과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착한 그녀. 나의 내 살 박이 늦둥이 딸도 얼마인 나보다 그녀를 더 좋아하고 따를 정도다. 아이들 비위까지도 맞춰주고 살아가는 그녀는 천성에서 내게 보내준 선녀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앞날에 아름다운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정말 사랑하는 말을 포천신문을 통해 전하고 싶다. 까만 밤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월빙 부사의(不思意) 학구열(學究熱)과 교육열(教育熱) 22

학구열은 '배우려는 열망' · 교육열은 '가르치려는 열망'



나 광고(廣告)로 알림판이 넘쳐난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심(關心)이 많다. 아마도 일류대 입학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교육열'이 높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일류대를 지향(指向)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탓할 일만도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외국어의 경우 대학에 들어가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일단 대학만 들어가면 됐다는 식이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당사자(當事者)이건 학부모(學父母)이건 그것으로 끝이다. 가르치려는 열정(熱情)이 거기서 끝난다. '우물 안 개구리 식'이기 때문이다. 세계명문대학 학생들을 보라.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지 못한다. 아니 4시간 이상을 자고선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戰爭)이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어떠한가? 무사태평(無事泰平)이다. 대학과 학벌이 보장해주는

때문이다.

'교육열'과 '학구열'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높으나 학구열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열만 높아서는 안 된다 학구열도 높아야 한다.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도 공부해야 한다. 학부모(學父)들도 공부해야 한다. 아니 '공부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은 따라 한다.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것이다. '교육열' 못지 않게 '학구열'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말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이다.

학부모들뿐 아니라 교사(教師)들과 교수(教授)들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항상 연구(研究)하고 노력(努力)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티벳 승려들의 설법(說法)을 들어보면 매번 그 내용(內容)이 다르다고 한다. 평생(平生)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매일 공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공부하고 강독(講讀)해서 만들어야 한다. 아마도 평생을 다해도 못 다 할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학구열'을 높일 수 있는 '방법(方法)'이기 때문이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바람뽕(바람뽕)' 해도 너희는 바람뽕 해서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서당(書堂) 선생이 혀가 짧아 본인은 '바람뽕'이란 발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만은 '바람뽕' 해주기를 간곡히 바랐다. 그래서 생겨난 고사다. '교육열'과 '학구열'의 중요성을 함께 말해주는 고사가 아닐 수 없다. 양쪽 바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열'과 '학구열'이라는 수레바퀴가 '균형(均衡)과 조화(調和)'를 이루어야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다.

탐방 5 선 계 목장

집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운 목장

한국농축육유포럼 여성분과 포천분회 이미영 내촌지부장이 경영하는 선계목장(대표 최천기 내촌면 마립2리)을 찾았다.

1980년에 한우 3마리로 시작하였다가 한우파동으로 정리하고 분유먹이송이자 2마리로 남동생 이를 송구에서 '선'자와 친정아버지와 절친하게 지내시던 남계목장의 '계'자를 따서 목장이름을 짓고 새롭게 목장을 시작했다.

이미영 내촌지부장은 내촌초, 내촌중, 광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유통사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그 당시 갑작스럽게 축산대학을 다니던 남동생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이 아버지가 충격으로 목장 일에서 손을 놓으셔서 이미영 지부장 부부가 경험 없이 목장 일을 맡았다.

최천기 대표는 처갓집 동네에서 어른들에게 육 안 먹고 장인 장모님께 아들 뉘까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경험 없이 시작한 목장 일은 어려움이 많았다. 유방염,

번식장애, 쿼터량 523L로 착유소 일부를 정리하기도 하고 부부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기도 했다.

혹독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낙농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부는 서로 도우며 일하고 낙농교육 세미나도 받고, 축협에서 실시하는 인공 자기수정 교육을 받아 자가 수정 하며 자체 TMR배합사료를 급여하며 사육관리를 했다.

선계목장(최천기 대표)은 4년 전 목장부지 2천200평을 구입하여 집을 짓고 2월8두 헤링본 착유시설로 현재 착유소 37두, 후보소 35두 등 총72두를 사육한다.

이미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didmsal8523@hanmail.net

다. 서울유유 쿼터량 1천23L로 처음에는 목장살림을 이미영 지부장이 담당하느라 남편에게 넘겨주니 더욱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2천L를 목표로 착유하며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회복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한 일을 성취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미영 지부장이 선계목장을 잘 경영하면서 친정아버지가 적어놓은 낙농일기를 읽어버린것이 가장 아쉽다고 한다.

